

독일, 건물에너지법 개정과 보조금 확대 기반 스마트 에너지 건물 시장 성장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지멘스, 보쉬, BSH 등 스마트홈·빌딩 솔루션 기업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□ 독일 스마트홈 시장은 건물에너지법 개정과 보조금 확대를 통해 '25년 78억 6천만 달러(약 10조 6천억 원)에서 '31년 129억 1천만 달러 (약 17조 4천억 원)로 연평균 8.62% 성장이 전망

○ '24년 건물에너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미터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며 스마트 빌딩 인프라 전환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산

- 스마트 미터 보급 대수가 '22년 약 27대에서 '24년 9월 기준 100만 대를 돌파하며 에너지 수요 반응형 빌딩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
- 연방 건물 리노베이션 웨이브 정책이 시장 성장률에 약 2.1% 추가 기여하는 핵심 정책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리노베이션 수요 확대

○ KfW·BAFA 프로그램*이 에너지 관리 설비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 약 1만 5천 유로(약 2,175만 원)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스마트 빌딩 인프라 전환 투자를 촉진

* KfW·BAFA 보조금 프로그램은 독일 정부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건물 에너지 리노베이션 및 설비 도입 지원 제도

- 다세대 주거 개발사들이 보조금을 활용해 스마트 온도 조절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20~30% 수준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달성
- 보조금 수혜가 1990년 이전 건축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며 노후 건물의 에너지 관리 설비 교체 수요가 리노베이션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

○ 탄소가격제 강화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스마트 열펌프 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 등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빌딩 설비 도입이 빠르게 확대

- '25년 스마트 기기 구매의 42%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가 빌딩 리노베이션의 핵심 투자 항목으로 확대
-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·배터리 저장·적응형 난방을 연계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 투자가 확대되며 가구당 연간 3,000~5,000유로(약 435만~725만 원) 수준의 투자 형성

○ 에너지 관리 세그먼트가 '31년까지 연평균 13.78%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스마트 빌딩 인프라 시장의 핵심 성장 분야로 확대

- 광대역 전력선 통신(PLC) 기술이 17.1% CAGR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신규 배선 없이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 스마트 빌딩 전환이 노후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에서 확산
- 지멘스, 보쉬, BSH 등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Matter 프로토콜 기반 통합 에너지 관리 플랫폼 개발을 가속

※ 출처 : Mordor Intelligenct(2026.01), Germany Smart Home Market Size & Share Analysis - Growth Trends and Forecast